



山林資源造成의 綜合的 推進에 力點

造林局長 李 輔 植

今年은 2千年代를 準備하는 山地資源化 10年計劃의 4次年度로서 造林 및 育林事業 等 山林資源造成 分野는 資源化 10年計劃을 跡跌歛는 推進을 為하여 林業振興促進地域을 中心으로 經濟林을 擴充할 計劃으로 國庫 501億원, 地方費 196億원을 投入하여 造林 36千ha, 育林 307千ha, 砂防 443ha 等을 內實있게 推進할 計劃이며,

이외에도 國民들의 保健, 休息空間을 擴充해 나감으로써 날로 增加해 가는 山林의 公益機能을 充足시키기 為하여 地方山林博物館의 建立과 樹木園의 造成 및 野溪砂防事業을 擴大 實施해 나감으로써 山林의 重要性과 고마움을 새롭게 認識시키는 契機를 마련하는 等 山林資源造成分野의 '91年度施策을 綜合的으로 推進해 나갈 計劃이다.

○造林 및 育林事業

造林事業은 國內材 自給基盤의 擴充을 為해 솔잎혹파리 等 被害地와 形質不良林에 對한 樹種更新 造林에 가장 큰 比重을 두고 이를 重點 推進함과 아울러 農山村 景觀造成과 連繫하여 有實樹, 速成樹, 特用樹等 短期所得樹種 造林도 竝行하면서 山主希望과 長期木材 需給에 符合하고 適地適樹가 잘 履行될 수 있도록 有用闊葉樹 造林도 持

續的으로 實施해 나갈 方針이다.

또한 現在 大部分의 山林이 幼齡林으로 보다 적극적인 施業을 필요로 하는 育林事業은 確實한 造林成果와 林木의 質的, 量的 生長促進을 기할 수 있도록 풀베기, 稚樹 가꾸기, 間伐事業에 역점을 두고 推進을 하면서 덩굴除去事業과 優良天然林의 保育事業도 적극 推進할 方針이다.

아울러 今年부터 새로이 重點 推進할 몇 가지 施策事業을 소개하면,

첫째, 그간 추진해 왔던 綠化爲主의 造林事業에서 소홀했던 主要地域의 經濟林造成을 擴大하기 위하여 優先 “多目的 經濟林造成事業”을 今年度부터 5個年計劃으로樹立, 高速道路邊 山林부터 樹種更新 大苗造林과 철저한 育林作業을 實施하여 多目的 經濟林으로 조성하고 아름다운 國土景觀과 山地生產性을 높이는 經濟林으로 가꾸어 나갈 計劃이다.

둘째, 이제까지 지원하지 못했던 산불 및 솔잎혹파리 被害地에 대한 樹種更新 復舊造林을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為하여 植栽費費를 優先 8백 ha, 81百萬원 (ha當 支援額 144,600 원, 180,750 원 중 80%)를 支援할 計劃이며, 앞으로 이를 점차 擴大하기 為하여 關係部署와 積極的으로 協議할 계획이다.

셋째, 山林經營의 基本이 되는 造林 및 育林事業의 원활한 推進을 위하여 직·간접적 인 與件을 改善하기 위한 造林 및 育林事業費의 融資 規模를 26억원으로 대폭 擴大하였고,

넷째, 造林投資 雾圍氣擴散을 위한 對山主指導(특히 10ha以上 山主의 集中指導管理)와 弘報를 重點推進하면서, 計劃的 山林經營山主에 대하여는 施業의 自律性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山林組合을 통한 委託事業의 擴大와 市·郡 및 山林組合의 現場為主施業指導를 強化하여 施業의 促進과 成果 있는 事業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다섯째, 要存國有林 894千ha中 人工造林地는 219千ha로서 造林率이 24%에 不過하여 資源面에서 貧弱하고, 開發面에서 부진한 실정에 있으므로 國有林의 資源化促進方案을 講究코자 人工造林率을 2000년까지 30%以上 提高할 目標로 國有林資源化促進計劃('91~2000)을樹立하였고 今年度는 그첫해로서 다음과같이 山地資源化 10年計劃上 當初 造林 및 育林物量보다 대폭 擴大推進할 計划이다.

○砂防事業

集團荒廢山地는 '91년까지 復舊하고 '92年부터는 分散荒廢地 및 山沙汰等新生荒廢地를 復舊하여 上流山地가 綠化 安定된 下流荒廢溪川에 野溪砂防 및 砂防댐을 擴大 實施하고 山沙汰 危險地에 對한 豫防砂防을 實行하여 災害를 豫防코자 하며,

'91年度에는 山地砂防 443ha 및 山沙汰危險地에 豫防砂防 40ha를 計劃하고 系統砂防에 依한 地域完結復舊原則에 따라 山地砂防과 連繫하여 野溪砂防 160km와 砂防댐 85個所를 施設할 目標로 國庫 97億원,

地方費 39億원을 投入하여 砂防事業을 推進할 計劃이다.

○技術指導事業

技術指導事業은 造林 및 育林事業을 效率적으로 추진하면서 私有林經營의 活性화와 農山村 人力難에 對處하기 위하여 私有林協業經營의 擴大普及과 民有林作業團 및 山林開發事業團의 擴大設置 運營等을 推進해 나갈 계획으로,

첫째, 私有林經營構造改善을 위한 協業經營事業은 '97년까지 833個協業體組織을 目標로 '90년까지 78個協業體를組織하였으며, '91年度에는 31個協業體를組織, 行政, 技術, 財政等을 集中支援·育成하여 私有林經營을 促進해 나갈 計劃이다.

둘째, 民有林作業團은 最近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農山村 人力難에 대처하고 山林事業의 원활한 推進은 물론 專門的인 山林作業 實行을 통한 勞動生產性을 향상시키고자 '91年度에는 40個 山林組合에 作業團을組織하고 作業團裝備購入을 為하여 970百萬원(1個 作業團當 24百萬원)을 支援할 計劃이며, '97년까지 231個 作業團을組織하여 山林作業의 專門化를 기할 계획이다.

셋째, 林道施工과 休養林造成等 特殊技術을 요하는 山林作業과 山林開發事業은 물론 育林, 伐採等 大規模事業을 山林開發事業團에게遂行케 함으로서 山林事業의 專門化, 體系化를 이루하고, 山林組合의 自立基盤을 造成키 위하여 '92년까지 山林組合中央會 8個道支部에 8個 山林開發事業團을 設置할 目標로 '91年度에는 政府에서 1,362百萬원을 支援하여, 忠南, 全北, 慶南等에 3個事業團을 設置할 計劃이다.